

# "즐거움 좇아 계속 하며 산다" 김완선의 인생 그루브

"결혼하지 않은 것,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몸 움직이지 않으면 불행... 행복 멀리 있지 않아"

"정보 줄여야 평상심 유지, 뇌 청순한 게 행복 비결"

"시장 반응 없어도, 10년간 신곡 발표하는 이유"

"인생은 춤... 할머니 때도 춤추고 노래할 것"

김완선이 외계인처럼 등장하는 1980년대를 생각해 본다. 이지연과 강수지가 버들가지처럼 얇은 허리로 스윙하고, 댄스 머신 박남정이 로봇처럼 꺾기춤을 뽐내던 시절. 고압 전류 같은 목소리를 하늘 높이 쏘아 올린 채, 예열도 없이 무대에 뛰어 들어 춤추고 노래하던 김완선.

들판을 뛰는 야생마이자 동시에 트랙을 질주하는 경주마 같았던 여자. 80년대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김완선의 눈빛과 춤을 어찌 잊을까.

김완선은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너무 일찍 도착한 '선물' 같았다. 글래머러스했던 80년대, 테크노와 미니멀이 융성했던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자 김완선은 서서히 잊혀 갔다. 몇 년 전부터 레트로 열풍이 일고, 김완선이 '왕년의 댄싱퀸'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소환될 때마다, 나는 아쉬움이 들곤 했다.

'과거로만 소비될 사람이 아닌데.'

그러던 어느 날, 'Here I am(나 여기 있어요)'이라는 김완선의 자작곡을 들었다. 정식 공연 스테이지도 아니었고, 어느 예능 프로그램의 틈새에 주어진, 허름한 국밥집 앞이 무대였다. 눈을 감고 한 음절씩 짚어 부르던 노래 '...숨이 멎을 듯이 힘들다 해도, 잊지 마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만든 깊고 청아한 노래를 부르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노래와 삶이 함께 흘러간다는 게 저런 거로구나.'

김완선을 만났다. 정규 앨범 '2020 김완선'을 발표하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방송사들이 밀집한 상암동 미디어센터는 때 이른 무더위로 바닥부터 열기가 피어올랐다. 조각 광장 앞으로



진 재킷에 레이스 원피스, 스니커즈를 신은 김완선이 걸어왔다. 더할 나위 없이 쿨한 모습이었다.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자유와 즉흥과 감사였다.

-86년, 17살 첫 데뷔 무대 '오늘 밤'을 기억해요? 발레리나 튀튀 복장에 운동화를 신고 뛰어 들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어제 같아요. 생생하죠.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3년 동안 그 무대를 위해 연습했었어요. 하하. 그런데 눈 깜짝할 새 30년도 더 흘렀어."

거리길 게 없는 사람 특유의 맑은 주파수가 온몸에서 흘러나왔다. 만지면 손아귀 사이로 빠져나가는 무지개 처럼... 아하하하, 공중을 울리는 웃음소리는 너무 높고 청량해서, 인터뷰 내내 테이블 위로 스피클링 워터가 분



▲ 더욱 트렌디한 2020 앨범의 비주얼.

무 되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엔 에스트로젠으로 꼭 찬 야릇한 고음이 느껴졌는데, 요즘엔 가벼운 공기방울 같더군요.

"하하, 예전만큼 높지는 않아요. 원래 저는 처음인데 제작자가 고음을 내야 주의를 끌 수 있다고 한 키를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노래 못하는 애가 돼버렸잖아. 라이브 할 때 곧잘 백사리가 나고는 했죠. '한 키만 낮춰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웃음). 이전 자연스럽게 고음이 내 키에 맞게 됐어요."

-노래방에서 김완선 노래 불러본 사람은 알죠,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웃음). 작년에 촬영된 '뽀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2019)' 동영상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느낌이 나더군요. 좀비와 뽀에로가 어우러진 모습이 굉장

히 현대적이었어요.

"할로윈에 맞춰서 에버랜드와 플라보했어. 그쪽에서 리서치했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뽀에로는 날 보고 웃지' 뮤직비디오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좋았어요."

-세련된 곡이 많아 지금 리메이크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반색하며)그게 다음 목표예요. 알려진 곡도 알려지지 않은 곡도 제가 다시 부르면 더 좋겠다 싶어요."

-어떤 곡을 특별히 더 좋아하죠?

"좋아하는 곡 많죠. '리듬 속의 그 춤을', '뽀에로는 날 보고 웃지' '이젠 잊기로 해요' '기분 좋은 날'도 좋아요."

-이번에 발표한 싱글 앨범 중에서 '엘로우와 하이힐스' 공식 영상을 봤어요. 김완선은 과거의 레전드가 아니라 당대의 톱 아티스트더군요.

"우와!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당도하기까지 걸린 세월이 10년이야. 제가 2011년부터 계속 싱글을 냈어요. 그런데 반응이 없었어(웃음). 현재도 활동하는 가수라는 느낌을 주는 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하하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10년 동안 제 손바닥으로 모스부호 치듯 음악 시장을 두드리던 사람이, 갈채에 휩싸여 사는 젊

▲ K팝 원조 디바 김완선. 3년 만에 정규 앨범 '2020 김완선'을 발표했다

은 스타들보다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는 게 신기했다.

-반응 없이 무언가를 하기에, 10년은 너무 긴 세월인데요.

"계속 물었죠.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뭘까?' 나 스스로 명분이 필요했나봐요.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쉬지 않고 신곡 내는 가수'라는 명분. 그러다 최근 만난 어떤 분에게 해답을 얻었어요. "당신이 하는 그 행위가 아티스트"라는 거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떤 식으로든 자기표현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티스트래요. 그런데 제 기질이 딱 그래요. 동년배 가수들은 물론. '아무도 모르는 걸 왜 계속 해?' 음... 저는 '이상하다, 좋은데 왜 반응이 없지?' 궁금 해서 또 하게 돼요. 하하. 그렇게 타고났나봐요."

하고 싶은 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 그 자체로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귓가에 쟁하게 쏘였다.

-낙천적이죠?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내 걱정 하는 건 다 남들이야, 하하하. 왜 내 걱정을 그렇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반응 없으면 저도 지치죠. 그즈음에 분장실 같이 쓰던 한 텔런트분이 그러셨어요. "가수들은 좋겠다. 한 곡만 히트하면 평생 활동할 수 있잖아." 저는 오히려 그

애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히트곡 한 곡 나오기 쉽지 않죠. 그런데 또 그 한곡에만 안주하는 건 나하고는 안 맞아요. 저도 방송이나 행사에 가면 히트곡을 부르잖아요. 대중이 원하니까. 그런데 같은 노래를 한 30년 부르면, 저는 얼마나 지겹겠어요(웃음). 그때 생각하죠. 괜찮아, 난 싱글 내는 가수잖아. 그게 큰 위로가 돼요."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나와 닮은 곡을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유행가를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 활동할 때도 저는 당대 유명 작곡가와와는 일을 안 했어요."

-대신 당대 최고의 록 뮤지션들이 곡을 쓰고 사운드믹싱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신중현, 이장희, 김창훈(산울림 멤버), 손무현... 분위기가 그렇게 전위적일 수 없었죠.

"그분들은 다 자기 음악을 했던 뮤지션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전문 작곡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개인 활동을 많이 안 하셨어요. 저는 4집, 5집 내고는 신인들과 많이 작업했어요. 최근 10년 동안도 인디 뮤지션들과 일했구요. 곡도 다 제가 프로듀싱을 했어요. 이유는... 글썄요, 당대 잘 나가시는 분들은 저 말고도 작업할 사람이 줄 서 있잖아(웃음). 남들 하지 않은 것, 내 색깔이 들어간 걸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수록 김완선에 대한 편견이 하나씩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았다.

80년대의 김완선은 존재 자체가 센세이션이었다. 지지치 않고 춤을춰서 TV가 가장 사랑했던 가수, 단일 앨범 100만 장 기록을 세운 독보적인 여성 솔로. 한국의 댄스 뮤직을 눈부시게 도약시킨 K팝의 시조이자, '마돈나'와 비견할만한 동시대의 퍼포머였다.

'뽀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손무현)' '오늘밤(김창훈)' '리듬 속의 그 춤을(신중현)' '나 홀로 춤을 추긴 너무 외로워(이장희)... 고압 전류가 흐르는 현대적인 록 사운드, 디스코 비트를 유유히 빠져 (...3 페이지에서 계속)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캘거리 한우리교회**  
Calgary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민족을 향해 나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김재욱 | 교육,선교 담당:이강훈 목사, 이한준 전도사 | 차세대 목사: 이민예배,양욱 담당 목사: 오상학

주 일 예배	1부(교사)예배	오전 9시 30분
	2부 대예배	오전 11시
	교회학교 예배	오전 11시
	청년예배(KM/EM)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분	
화요일예배	저녁 7시	
토요일예배	오전 7:00	

www.calgaryhanwoori.com

예배처소 : Mount Royal University(Jenkins Theatre)  
4825 Mt. Royal Gate SW. Calgary AB. T3E 6K6

**태양** 정육·반찬·떡집

정육	반찬	떡류
LA갈비 찜갈비 소불고기 제육볶음 삼겹살 목살 사골	대패삼겹살 길쌈삼겹살 양념갈비 돼지불고기 양념불고기 꼬리 샤브샤브	김치, 부추김치 무말랭이 고추침 오징어젓 마른오징어무침 멸치볶음
		떡국떡 백설기 현미절편 가래떡 콩떡설기 현미설기 인절 무지개떡 절편 콩찰떡 송편 떡볶이떡 현미콩찰떡 팔시루떡 현미떡국떡 녹두시루떡 현미가래떡

"매달 두번째 화요일 휴업"

떡주문은 2~3일전에 해주십시오!

영업시간 : 월~토 11:00AM~7:00PM / 일요일, 할리데이 11:00AM~4:00PM

117, 15th Ave. SE Calgary AB  
TEL. 403-233-2252 / 613-5977